보 도
자 료

#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상임대표 / 문정현 ▪공동대표 / 한상렬,한지원,염경석,고홍석,문성주,이민우 ▪전화 0654)471-5346 ▪팩스 471-5337
▪군산시 나운동 798-1 소망빌딩4층 ▪통신/천리안 munjh ▪홈페이지 : inp.or.kr / regain ▪E-meil : regain@inp.or.kr

## 국방부 8월 16일 발표 - "주한미군 공여토지중 사용빈도가 적은 토지 한.미협상으로 반환, 대국민 신뢰도 증진에 기여"에 대한 보도문

99년 8월 16일(월)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영평 미군 다목적 사격장 일부토지 106만평, 서울 미 공군장교클럽 381평, 전북 옥구군 타코마기지 9,433평, 경기도 여주군 비콘기지 563평 반환하기로 한·미간 합의 하였다고 한다. 영평 사격장의 경우 그간 토지보상 44건, 토지반환 소송 68건이 제기 되었으며 국방부가 주한미군측과 87년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12년이 넘는 협상 기간을 거쳐 이루어진 반환인 것이다.

전북 옥구군 성산면 타코마기지는 이미 폐쇄된 기지임으로 폐쇄 직후 반환되었어야 함이 당연하고 전국적으로 현재 사용되지 않는 미군점유지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곳들 역시 즉시 반환되어야 한다.

군산미공군기지(220만평)의 경우 현재 지역 주민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며 인근 100만평의 국방부, 개인 소유 토지가 미군 공여지로 설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군산미공군기지 탄약고가 인근 마을과 100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아 마을 주민 전체가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탄약고 이전 요청을 국방부에 매년 제기하고 있음에도 국방부에서는 어떤 방한도 제시하지 않은채 지역주민에게 이해해 달라는 공문만을 보내왔을 뿐이다. 얼마전 군산미공군기지 소속 전투기가 추락했었는데 만일 전투기가 탄약고나 인근 마을에 추락했다면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 것인가?

이처럼 국민의 생명이 걸린 민원을 한·미 관계와 미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이해해달라는 국방부의 입장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민원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언제 해결이 날지는 전적으로 주한미군측의 협조에 따를 수밖에 없으며 경기도 문산읍의 경우 미군기지의 비협조로 제방을 높히지 못해 이번 수해피해가 더욱 컸다고 하니 12년만의 일부 반환을 선뜻 반길수 만은 없다. 오히려 군산지역 미군기지 관련 민원문제 해결의 먼 여정을 다시금 확인했을 뿐이다.

한국 정부의 한미행정협정 개정 협상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주한미군측의 이번 반환 결정 또한 환영할 만한 것은 결코 아님을 밝힌다.

**한·미행정협정 전면 개정하라!**